

# 더 맑고 깨끗한 물 공급

## 남원시, 월락정수장 현대화 사업 완료

남원시가 2019년에 착수한 시내권 물 공급의 허브인 월락정수장의 현대화 사업이 드디어 최근에 완공했다. 남원 월락정수장은 지난 1975년도에 최초 설치된 노후 시설로, 이번 사업을 통해 처리 공정(혼화·응집·여과·정수지)시설의 현대화 전면 개량 공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정수장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351억원(국도비 205억, 시비 136억, 특고세 10억)을 투자해 사업에 완료했다.



남원 월락정수장 전경

대화시설로 탈바꿈시켰고, 자동 설비 및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남원시민에게 더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됐다.

또한 정수장이 도통공원에 위치한 만큼 사람들의 접근이 쉬워 정수장과

공원의 조화를 고려한 담장 블록을 설치해 미적인 요소까지 가미하게 됐으며, 시는 환경부로부터 국비 222억을 확보해 총사업비 444억을 들여 노후 상수관로를 첨단 블록 시스템으로 2029년까지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리산권역 인월, 아영, 산내 지역 총 19개 마을에 상수관로 L=35km를 부설해 주민들이 맑은 물 공급에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오랫동안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먼지, 진동으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수장의 철저한 운영과 현장관리로 깨끗한 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남원시민들께 보답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보건복지부 공모 2관왕 달성 쾌거

## 요실금 치료 지원·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선정

남원시가 보건복지부 공모 2건에 연달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첫 선정된 공모는 올해 처음 신규 도입한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남원시만 선정되어 국비 2천5백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했다.

다음 선정된 공모는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으로, 2022년 처음 해당 공모가 시작된 이후 3년 연속 선정된 건 전국에서 남원시가 유일하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3천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천8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는 '치매환자여도 괜찮아요, 치매안심시장'을 주제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대형마트 등 낯선 시설 이용

이 어려운 치매환자에게 친숙한 전통 시장을 활용하여 원활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 이용객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대응법 교육을 실시하고 시장 내 치매 인식개선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치매 안심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은아 치매안심과장은 "남원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많은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국가사업을 적극 발굴 및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전북SW미래채움센터, 청년 SW개발자 양성과정 모집

남원 전북SW미래채움센터에서는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 사업 지역특화 프로그램의 하나인 '청년SW개발자 양성과정' 교육생을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모집하며, 특별히 이번 과정은 전북 청년뿐만 아니라 지리산권(구례, 곡성, 하동, 산청, 함양, 장수) 청년까지 포함한다.

이번 과정은 청년 중심의 소프트웨어(SW) 분야 개발자를 육성하여 지역 SW역량 강화하기 위하여 진행되며, 전북뿐만 아니라 지리산권 청년들의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

하고, 드론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교육을 통해 지역 IT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AI드론 SW개발자 양성과정'으로, 9월부터 한 달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되며 △ Arduino 프로그래밍 △드론 및 군집비행 프로그래밍 △파이썬 등으로 총 160시간의 교육을 통해 SW개발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 드론 및 로봇 기술을 융합한 고급 교육을 제공한다.

남원시가 후원하는 이번 과정에는 특별히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교육지

원금 최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Arduino 국제 민간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고 △교육비 △교재 △교구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고, 교육 이수 후 SW개발 관련 직무 취업 및 창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관계자는 "이번 양성 과정을 통해 전북과 지리산권 청년들의 SW 및 AI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IT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홍실 고추' 수매 본격화

## 관내 691농가 대상 9월 30일까지 1450톤 매입 예정

임실군이 전국적인 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 '임실홍실 고추' 수매에 본격 돌입했다.

군은 지난 25일부터 관내 691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약 1,450톤을 수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홍고추를 재배지에서 꼭지 제거한 상태로 공장에서 수매하고 있다.

엄격한 검수를 통해 수매한 최고품질의 홍고추를 3회 고압으로 살균, 세척한 후 저온(50~60℃)에서 3시간 건조한다.

또한 HACCP 지정을 받은 위생 설비에서 씻기 제거, 자외선살균, 금속검출기를 통해 생산된 최고급 고춧가루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관내 농가가 생산한 홍고추가 수매 대상이며, 심미도 분석을 통해 엄선된 최고급 품종으로 맛과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GAP 인증을 취득하여 안전성 관리에



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실홍실 고추는 전국적인 명성을 확보한 대표브랜드로 고춧가루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8월 15일부터 임실고추농산물가공판매(주) 직영 판매장(임실군 성수면 춘향로 2399) 또는 홈페이지(www.jggochu.com)와 고객센터(063-643-8949)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최적의 자연환경에서 자란 최우수 품질 고추와 까다로운 가공 공정이 어우러진 명품 고춧가루"라며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임실 고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관광 영상·사진 공모전 개최

순창군이 지역의 아름다움과 특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내 마음에 순창을 담다'라는 주제로 관광 영상·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내 마음에 순창을 담다'라는 주제로 영상과 사진 등 2가지 분야로 진행되며 관광지, 여행코스, 축제, 문화예술, 먹거리, 체험농장 등 순창군의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내용이나 참신하고 독특한 이야기 등 순창군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주제면 된다.

공모대상은 지역과 연령에 제한 없이 순창군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순창군청 홈페이지나 순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방문(순창군청 문화관광과)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총 시상금 1,200만원으로 영상분야의 시상금은 총 700만원이며 대상(200만원) 등 7개 작품을 선정하고 사진분야의 시상금은 총 500만원이며 대상(100만원) 등 48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입상 결과는 12월 중 순창군 홈페이지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입상작은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 공식 SNS 등에서 순창군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군, 죽전저수지 '낙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순창군이 풍산면 소재의 죽전저수지를 '낙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낙시 인구 증가로 인한 쓰레기 발생 급증으로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죽전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로, 만수 면적 2.2ha이며 1960년 설치 이후 농업용수로 사용되었고 지속적으로 낙시금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죽전저수지 전 구간은 8월 1일부터 지정 해제 시까지 낙시 행위 가점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낙시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낙시로 인한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제8기 남원시 문화저장 도시재생대학 종료

남원시는 지난 4월 1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한 제8기 남원시 문화저장 도시재생대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생대학은 총 3개로 △ Tea Master 3급 자격증 과정 △ 문화기획가 양성과정 △그림책 큐레이터 2급 자격증 과정으로, 주민들이 직접 교육과 전시 등을 기획 및 실행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 총 3개 과정 수강생 32명 중 27명이 자격증 과정을 취득했다.

이번 제8기 도시재생대학(이하 도시재생대학)은 (구)미도당 문화저장소 리뉴얼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까지 진행했으며, 총 4개년의 교육과정으로 이뤄진 사업으로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였다고 평가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백일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당부

최근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확산세가 보고되고 있는바,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 연령대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 중이다.

임실군은 10~19세 청소년에게 자주 발생하는 백일해 감염병이 집단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백일해는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이 특징적이다.

4~21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는 콧물, 눈물, 기침 등의 상기도 감염 증상

이 1~2주간 나타나며, 이 시기에 전염성이 가장 높다.

백일해는 환자 또는 보균자의 비말 감염에 의해 전파되며 전염성이 강하므로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위생 및 주기적인 환기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일해의 경우 항생제 치료 기간 5일까지,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침이 멈출 때까지 최소한 3주 이상 격리해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